“영암에서 온 가족·친구·동네 사람들 응원 덕에 우승 기뻐”

김세영, BMW 챔피언십 우승
LPGA 개인 통산 13승
한국, 올 시즌 6개 대회 우승

김세영이 해남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후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이 고향에서 우승 마법을 부렸다.

김세영은 19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에서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하면서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20언더파 268타)를 제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적어낸 김세영은 1라운드부터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을 선점한 뒤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장식했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약 5년 만에 LPGA 투어 통산 13번째 우승을 이룬 김세영은 우승 상금 34만5000달러(약 4억9200만원)도 거머쥐었다.

호남 지역에서 처음 열린 LPGA 대회에서, 고향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챔피언이 된 김세영은 ‘응원의 힘’을 이야기했다.

3번 홀(파 3)에서 보기를 기록했던 김세영은 선두 경쟁을 했던 노예림이 1번 홀(파4)에이어 4번 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1타차로 쫓기기도 했다.

김세영은 “항상 아버지께서 긴장되거나 하면 위축되지 말라고 하셔서 이겨내려고 했다. 또 갤러리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극적인 힘을 발휘했다(웃음).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좋은 생각으로 이겨내서 잘 된 것 같다”며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친구도 많이 왔다. 가족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것 같다. 너무 기쁘다. 가족들,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는데 많이 웃고 기쁘게 해드려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동료들이 축하를 많이 해줘서 기분이 정말 좋다. (전)인지가 마지막에 한 모금 마시라고 했는데 알딸딸하다”며 오랜만의 샴페인 샤워를 만끽한 기분을 이야기했다.

김세영은 자신을 상징하는 빨간 바지를 입고 최종라운드를 치렀다. 앞서 몇 차례 우승 기회를 놓치기도 했던 김세영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빨간 바지를 챙겨입고 필드에 나섰다.

김세영은 “아침에 바지를 입으면서 이번에도 우승 못 하면 안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그동안 우승 찬스가 있었는데 못 했었다”며 “프로 오고 나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간 바지를 입게 됐다”고 빨간 바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5년 우승이 없었던 김세영은 3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루키의 마음’을 이야기했었다.

루키의 마음을 다짐했던 김세영은 “신인 때 날 것 그대로 했었는데 이후 투어 연차가 쌓인 이후 방법론적인 걸 찾다 보니 안 좋았다. 이번에는 루키의 마음으로 했던 게 잘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잘했던 선수들은 자기의 것을 찾기만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주변의 도움 덕분에 나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안 좋을 때 주변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서 극복할 수 있었다”며 “늘 좋은 수는 없는 만큼 주변 조언도 잘 들어야 한다. 잘했던 기억을 계속 상기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루키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찾은 김세영은 골프 인생 방향을 바꿨다. 우승으로 반전을 이룬 김세영은 ‘세계 랭킹’을 목표로 달릴 생각이다.

김세영은 “예전에는 상금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올해부터는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목표를 세계 랭킹으로 바꿨다. 이번 우승으로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세계 랭킹이 선수의 가치다. 전 세계에서 랭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랭킹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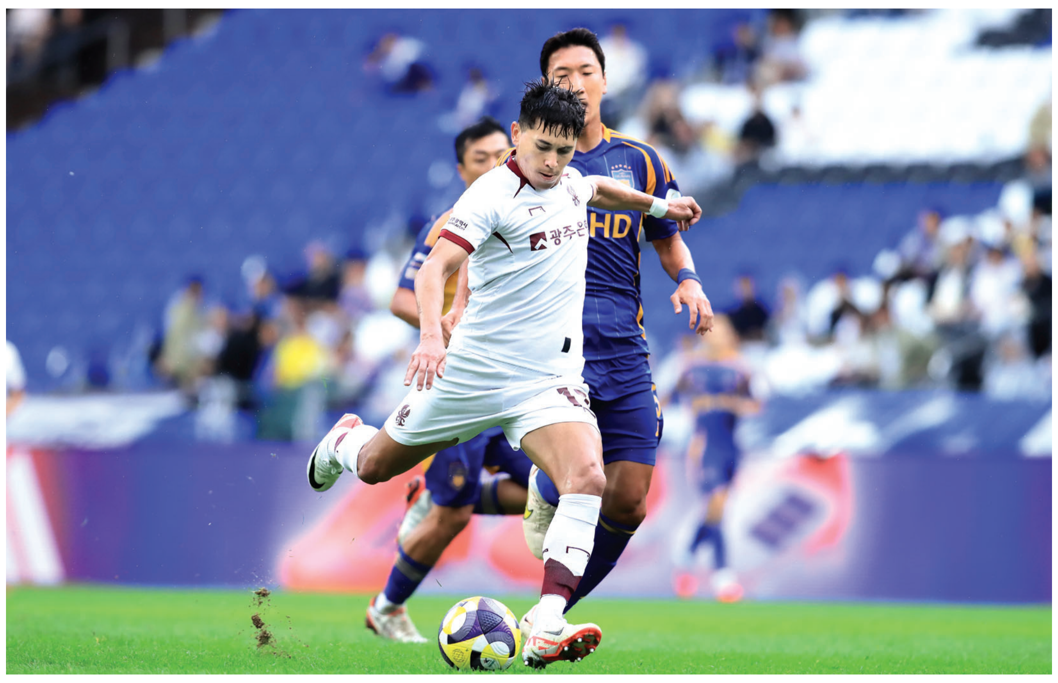
한편 이번 우승으로 한국은 2021년(7개)이후 4년 만에 한 시즌에 LPGA 투어 6개 대회 이상 우승이라는 성적을 냈다.

지난 2월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에서 김아림이 우승 스타트를 끊은 뒤 김효주(3월 포드 챔피언십), 유해란(5월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임진희-이소미(6월 다우 챔피언십), 황유민(10월 롯데 챔피언십)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해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이널B’ 광주FC, 잔류 전쟁 시작된다

울산 원정 0-2 패…8위로 밀려
전북, 승점 71…4년만에 우승


광주FC의 헤이스가 18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3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파이널A 진입에 실패하면서 남은 시즌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광주FC는 지난 18일 울산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3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정규라운드 최종전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더하지 못한 광주는6위 탈환에 실패했고, 7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광주의 6위 탈환과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의 첫 경기로 이목을 끈 이번 경기에서 전반 20분 ‘0의 균형’이 깨졌다.

울산 박민서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 경합 끝에 공이 루빅손에게 흘렀다. 루빅손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했고,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왼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를 갈랐다.

후반 5분 오후성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맞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던 광주는 프리드욘슨으로 후반 공세에 나섰지만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추가 시간 광주가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앞선 경합 과정에서 변준수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다.

이어 광주는 신창무의 반칙으로 페널티킥까지 허용했다. 키커로 나선 이청용이 그대로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는 0-2패로 끝났다.

광주는 11승 9무 13패(승점 42)로 정규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6위 강원FC(승점 44), 7위 FC안양(승점 42)에 다득점에서 밀려 8위가 됐다.

6위 자리를 놓친 광주는 파이널B그룹에서 남은 시즌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된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K리그1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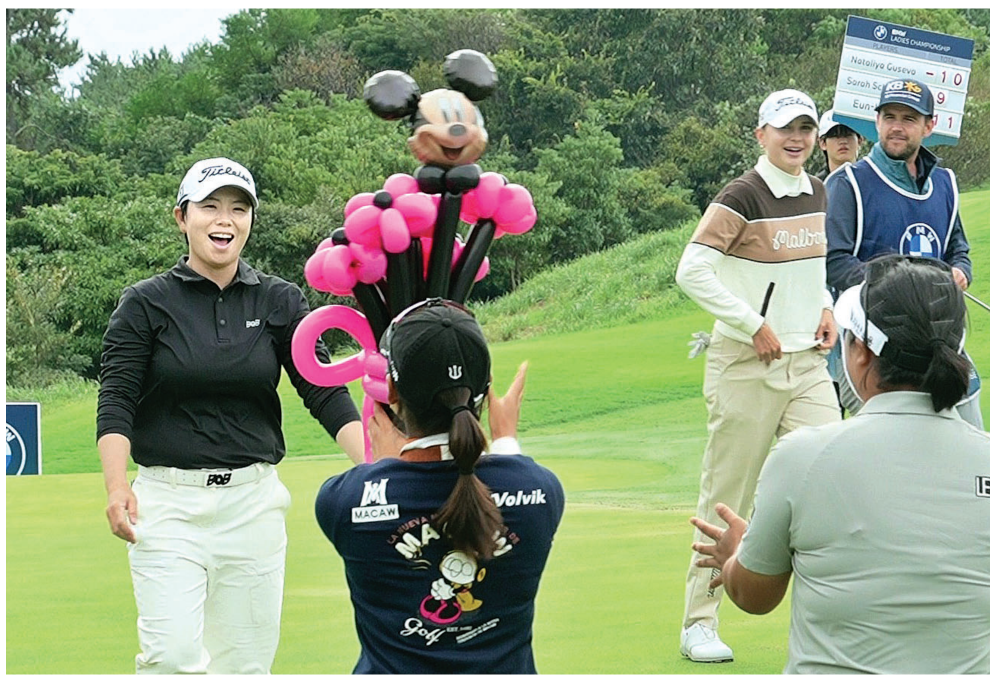
전북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33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승점 71이 된 전북은 김천상무(승점 55)를 16점 차로 밀어내면서 남은 파이널 라운드 5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의 챔피언 복귀이자 10번째 우승이다. /김여울 기자 wool@

‘맏언니’ 지은희, 웃으며 “안녕~”

LPGA 통산 6승·최종 성적 공동 24위하고 은퇴


경기를 마친 지은희가 동료 선수들로부터 은퇴 축하 풍선다발을 받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6승에 빛나는 지은희가 멋진 버디 퍼트로 선수 생활 마지막을 장식했다.

19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다. 4라운드 최종전이 진행된 이날 지은희가 마지막 홀에 등장하자, 앞 조에서 먼저 경기를 끝내고 퇴장했던 유해란과 이미향이 필드로 돌아왔다.

‘선배’ 지은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지은희는 지난 18일 3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기로 했다”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다.

후배들에게는 ‘깜짝 소식’이었다. 3라운드 1위로 공식 인터뷰에 나선 김세영이 소식을 듣고 “진짜 은퇴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김세영은 “몰랐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선수인데 섭섭하다. 은희 언니가 워낙 운동 소질이 있어서 계속할 줄 알았다. 그동안 좋은 충고를 해주셨고, (김)효주, (김)미향이랑 싸우면 중재 역할도 해주셨다(웃음). 투어에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아쉽다”고 지은희의 퇴장을 아쉬워했었다. 그리고 19일 지은희는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 경기에 나섰다. 마지막 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한 지은희는 8언더파 64타의 좋은 기록으로 은퇴날을 보냈다. 최종 성적은 12언더파 276타로 유인나 등과 공동 24위였다.

각별했던 후배 김미향과 유해란은 마침 앞 조에서 먼저 경기를 끝냈고, ‘선수’ 지은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지은희의 마지막 퍼트가 그대로 홀에 떨어지자 두 선수는 크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김미향은 무릎을 꿇고 준비한 풍선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갤러리 사이에서는 “은퇴하면 안 되겠다”는 찬사가 나올 정도로 지은희는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멋있게 퇴장했다.

/해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구단 500호골 ‘축포’

MLS 콜로라도 래피즈전 전반 42분 시즌 9호골…팀 2-2 무승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의 ‘골잡이’ 손흥민(33)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시즌 9호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19일 열린 콜로라도 래피즈와의 2025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최종전 원정에서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비긴 LAFC는 승점 60을 기록, 샌디에이고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이상 승점 63)에 이어 3위로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에 나서게 됐다.

손흥민은 10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MLS 사무국 기준)으로 데뷔 시즌 정규리그를 마쳤다.

손흥민의 득점으로 LAFC는 창단 260경기 만에 정규리그 500호골을 뽑아냈다.

이는 기존 기록을 35경기나 앞당긴 MLS ‘최소 경기 500호골’ 신기록으로, 손흥민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은 76분을 뛰면서 1차례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원샷원킬’ 능력과 더불어 3차례 키패스와 8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